산업통상자원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. 1.(월) 00:30 < 1.1.(월) 조간 > 배포 2023. 12. 29.(금)

장관, 신년 첫 행보 수출현장 방문

- 인천공항서 올해 선전이 기대되는 새해 첫 반도체 수출현장 점검
- 2024년 수출 우상향 기조 강화를 위한 정부 총력지원 천명
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 방문규 장관은 '24.1.1.(월)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, '24년 새해 처음 출항하는 국적 화물기(KE207, 미 LA행, 01:20발)의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하였다. 인천공항은 세계 2위 규모의 국제(글로벌) 중심(허브)공항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33%를 담당하는 반도체·정보통신기술(ICT)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관문이다. 방 장관이 점검한 반도체 수출은 주요 연구기관에서 올해 15~20% 증가를 전망하는 만큼, 반도체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상승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국제화물 처리량('22년) : 1위 홍콩(417만 톤), 2위 인천공항(291만 톤), 3위 상하이 푸동(257만 톤)
* 항구·공항별 수출('22년) : 1위 인천공항 2,290억 불, 2위 부산항 1,521억 불, 3위 울산항 535억 불

방문규 장관은 화물터미널에서 국제화물 처리현황을 청취한 후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며, "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수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 우상향 추진력(모멘텀)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수출 물류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신 여러분 덕분"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격려품으로 방한 목도리를 선물하였다. 아울러 방 장관은 "올해도 세계(글로벌) 고금리 기조, 미-중 경쟁 등으로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, 반도체 업무 현황 회복, 자동차·선박 등의 호조세를 기반으로 수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"라고 강조하였다.

정부는 수출 상승 추진력(모멘텀)을 확고히 하기 위해 ①수출 전(全) 단계 대상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1분기부터 공급하고, ②수출바우처, 해외 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 예산 규모를 1조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며, ③해외인증 예산 등을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. 아울러 정부는 물류 위험성(리스크) 선제관리와 안정적 물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적재공간(선복) 및 운임할인 지원과 추가로 해상 물류 적체 애로 대응을 위한 대책반도 운영하고 있다.
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	책임자	과 장	박재정 (044-203-4030)
		담당자	사무관	장지혜 (044-203-401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2024년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 개요**

□ **일시 :** ‘23.12.31(일) 23:40~ ’24.1.1(월) 00:25 (45분)

□ **장소 :**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

□ **참석**

○ **(산업부) 방문규 장관,** 조익노 무역정책관, 박재정 무역진흥과장

○ **(KOTRA) 김윤태 부사장,** 권오형 수출역량강화실장

○ **(인천국제공항공사) 전형욱 부사장,** 김창규 미래사업본부장

○ **(대한항공) 유종석 부사장,** 엄재동 전무, 서준원 상무, 이시우 상무

□ **세부 일정**

시간		세부 일정	비고
23:40 ~ 23:50	10′	・인천공항 물류현황 브리핑	화물터미널 로비
23:50 ~ 00:20	30′	・화물터미널 현장 시찰 - 수출 작업장 순시 - 선적작업 참관 및 작업자 격려 * 격려품(방한 목도리) 증정	화물터미널 내 작업장
00:20 ~ 00:25	5′	・화물터미널 복귀	

※ 현장사진 별도 배포